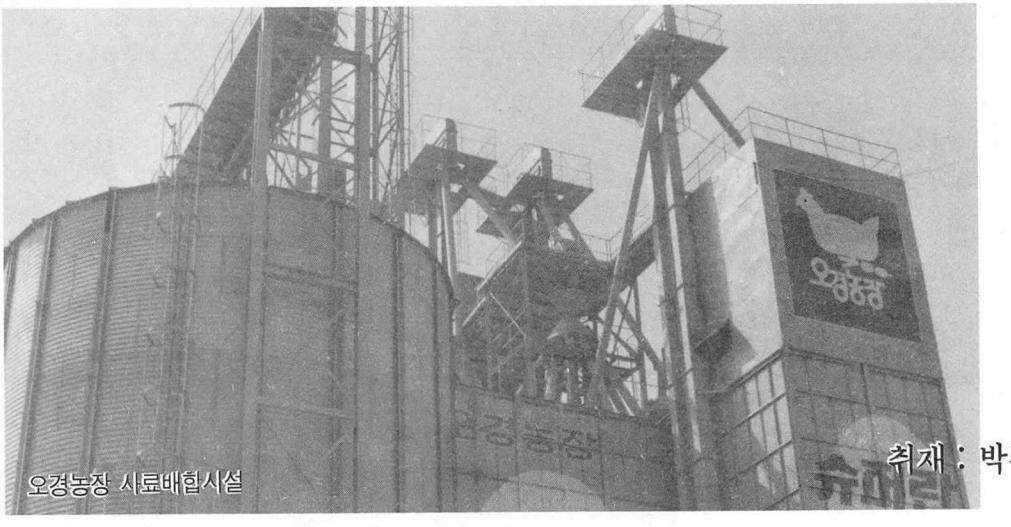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오경농장을 찾아서



오경농장 사료배합시설

취재 : 박진규 기자

현재 진행중인 UR농산물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 압력은 더욱 더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양축가들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비중 60~70%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의 절감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한, 올해부터 배합사료공장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뀔 예정이고, 대두박·옥수수를 비롯한 일부 사료원료가 수입 자유화가 되게 됨에 따라 양축가들의 자가배합사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양계협업단지에서 자가배합사료 공장 설립

오경농장(대표 : 김중경)은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국내 최초로 양축농가의 협업체로 이루어진 자가배합사료공장이다.

부산에서 30분거리인 양산군 석계리에 위치하고 있는 오경농장은 그 부근의 양계농가 100여 농장의 협업체로 이미 20여년 전부터 협업단지를 이루어 계란의 공동출하를 비롯해, 기자재·사료 등 원자재의 공동구입 등을 해왔다.

그러다가 5~6년전부터 회원들이 생산비를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자가배합사료공장 설립을 합의하여 협업오경농장의 회장 김중경씨의 주도에 의해 자가배합사료공장이 설립됐다.

작년 6월에 15억여원을 들여 자가배합사료공장으로 설립된 오경농장은 현재 1일 허가톤수 100여톤을 생산, 월 3천~3천 5백톤을 생산하여 협업단지 내의 농장에 공급하고 있다.

오경농장의 김중경 회장은 「자가배합사료공장 설립은 협업농가에 싼 가격의 배합사료를 공급하므로써 품질좋은 계란을 생산토록 하고 일반 사료회사의 경영 방침에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립동기를 설명했다.

실제로 이 사료를 공급받고 있는 농가에서는 「자가배합사료공장을 설립하기전에도 사료를 공동구입하므로써 일반농장에 비해 10%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사료를 구입해 왔는데, 자가배합사료공장 설립으로 이보다 10%를 더 절감했다」고 밝혀 일반농가에서 자가배합사료를 이용하면 20%이상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사료의 생산비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으로는 기존 사료회사에서 공급하는 사료의 가격에는 원료비외에 영업비와 판촉비, 마켓팅비,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반해, 자가배합사료공장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운송비를 감안하여 배합사료공장으로부터 반경 50km 내외의 농장들에게 공급되며 멀리는 경주에까지 공급되고 있다.

품질면에서도 이전에는 P회사의 사료를 공급받아 왔으며, 이 공장설립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P회사의 기술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농장에는 원료사료를 저장하는 750톤 규모의 사일로 3개, 원료별로 구분해 저장하는 100톤 규모의 원료빈 8개, 원료를 배합하는 20톤 규모의 배합빈 15개, 제품을 출하하는 제품빈 4개로 모든 공정이 전자동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공장관리 인원은 8명이고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이다.

오경농장의 김중경 회장

사료를 포대에 담는 모습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은 현재 큰병아리용사료와 산란초기사료 등 2가지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나, 여름철에는 산란 부스터가 생산되고 나머지 소규모 사료는 계속 P회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포장은 5백kg 타이콘 백 단일포장으로 지대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제품을 차에 싣는 모습

정부의 지원면에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없었으나, 자가배합사료공장 설립에 대한 정부의 의욕이나 설립허가시의 지원은 앞으로 자가배합사료공장 설립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사료관리법이 자가배합사료공장 운영에 가장 큰 장애

그러나 자가배합사료공장이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현행 사료관리법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다.

현행 사료관리법에는 주요 수입사료원료를 축협과 사료협회, 주요 곡류 수입상사에서만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양축농가에서는 원료를 직접 수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재 오경농장에서는 수입원료는 축협에서, 일반원료는 일반시장에서, 농축사료는 P회사로부터 구입하고 있다.

구입가격면에서는 다른 사료회사와 큰 차이는 없으나 수입원료도 일반농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면 더욱 가격이 싸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가배합사료공장 설립이 무조건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경농장의 박도원상무는 설립요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어느 정도 규모가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즉, 사료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3천톤 이상의 가동물량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개인이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으며, 조합이나 협업단지, 지역단체의 축종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농장의 기술 축적이 되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농장에서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료회사에 비해 기술면에서 뒤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점은 일반 사료회사에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셋째, 원료 사료의 공급원이 사전 확보되어야 겠다. 적은 규모의 원료확보가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부실화도 함께 잠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어야 하겠다.

넷째,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사료공급을 중요시 해야 한다. 보통 자가배합사료공장은 대량 수요되는 품목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소량 수요되는 품목도 기술적으로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회원간의 단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회원들간의 단결이 되지 않

으면 자가배합사료공장이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둘째, 셋째, 넷째의 경우 오경농장에서는 P회사로부터 원료사료 구입량중 20~25%(500~600톤)를 차지하는 농축사료와 소량으로 수요되는 품목의 사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급부로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점이 앞으로 자가배합사료공장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계란을 공동출하하는 모습

자가배합사료공장이 설립되어야 생산비 절감

박도원 상무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현재 미국의 경우 전체의 80~90%가 자가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 45~50%, 대만 25~30%정도가 자가배합사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점차 자가배합사료공장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이 많이 들므로 자가배합사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농장을 위해 일반사료회사의 경영에 주의를 환기시켜 사료가격을 낮추는 역할까지 해주는 것이 양축농가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설비의 경우 1일 50톤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는 사일로, 컴퓨터설비, 전기, 분쇄설비, 계량서립, 혼합설비, 제품출하설비 등이 포함되는데, 여건상 설비를 안해도 되는 것이 많아 상당히 유동적이다. 또한 소규모로 사료공장을 설치할 경우 미국에서 수입된 기계로 설치자금이 약 7천 5백~1억원 정도가 들며 이 경우 최고 1일 12시간가동에 48톤을 생산할 수 있다.

아무튼 오경농장의 설립으로 사료비의 가격을 낮추고 또, 기존의 사료회사 경영방침에 주의를 준 것은 사실이며, 이를 계기로 자가배합사료공장이 많이 설립되어 사료가격이 더욱 낮아져 양돈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